



TV 드라마에서 우리네 가족을 보다

〈잔원일기〉, 〈아들과 딸〉, 〈엄마가 뽀뽀〉
〈하이리 3〉에 없는 건?
〈드림하이2〉 vs 〈빛과 그림자〉

TV 드라마를 둘러싼 가족 이야기' 앞으로 이 지면을 통해 몇 차례에 걸쳐서 풀어보게 될 내용입니다. 텔레비전은 가장 많이 이용되는 미디어이고,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지요. 그 중 언제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장르입니다. 우리는 드라마 속 "사람 사는 이야기"에 울고 웃고 즐기며 하며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면에서는 가족이 우리 삶에 의미하는 바를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지요.

의 이야기인데, 그 속에서 자기 부모와 형제자매, 자녀의 모습을 발견케 되지요. 가족을 떠올리며 드라마 인물과 비교해 보기도 하고, 때론 후회하기도, 위로받기도 합니다. 혹은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과 꿈을 꾸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TV 드라마는 우리네 가족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잔원일기〉, 〈아들과 딸〉, 〈엄마가 뽀뽀〉

먼저, 드라마는 일부 단막극을 제외하면, 결국 모두 가족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삶을 풀어나가 하는 호흡에서 가족 사이의 사랑이나 마음이 빠질 수 있을까요? 절대 빼놓을 수 없겠지요. 우리나라라는 외국에 비해 전문 드라마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부모, 부부, 아들과 딸, 형제자매, 고부 간, 사돈 간 갈등이나 화해는 언제나 드라마의 단골 소재입니다.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 대다수가 그런 가족들의 이야기로 꾸러졌었습니다. 〈첫사랑〉, 〈사랑이 뭐길래〉, 〈아들과 딸〉, 〈목우랑집 남자들〉 등 말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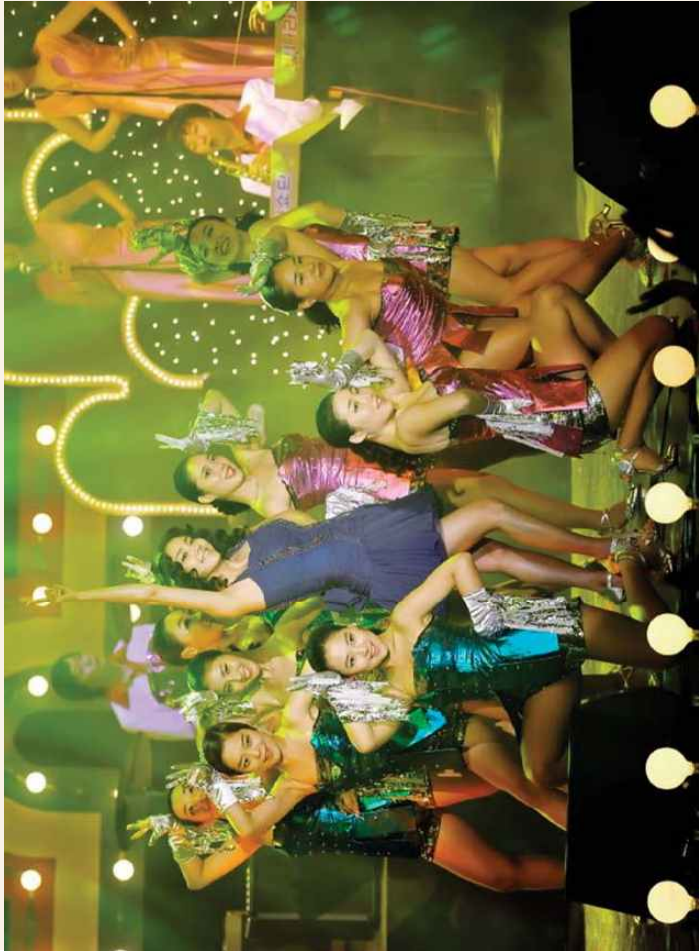
이런 구성에 쉽게 빠져들고 감동하는 건, 아마 그 속에서 내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엄마가 뽀뽀〉의 엄마는 늙어 가지거나 혹 이미 세상을 떠나신 나의 엄마와 닮아있고, 〈오작교 형제들〉의 형제애에서 나의 형제의 사랑방식을 떠올립니다. 숨겨진 도시인들에게도 〈잔원일기〉 김 회장님 가족이 남 얘기 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이들 부모와 형제자매, 자녀의 모습을 발견케 되지요. 가족을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과 꿈을 꾸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TV 드라마는 우리네 가족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이리 3〉에 없는 건?

그런데 같은 소재지만 예전과 지금 드라마가 보여주는 가정의 형태는 똑같지 않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흔히 '홀드라마'의 경우, 3, 4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 모습이 예전에는 흔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다양한 인간관계를 보여주어 흥행한 시트콤 〈하이리〉 시리즈에서도, 가장 최근작 〈하이리, 짧은 다리의 역습〉에선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라졌습니까. 뿐만 아니라, 재혼이나 다문화가정, 혈연관계가 아닌 가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아내의 유혹〉이나 〈조강지처클럽〉처럼 '반장'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볼거리 이야기는 더 이상 세로워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군요. 〈인생은 아름다워〉처럼 가족 내 동성애자 이야기가 가족을 둘러싼 관습적 규범과 윤리를 낫설게 만들기도 합니다.

대부분 TV 프로그램은 작품성이나 완성도 보다는 대중의 인기로 평가되기에 더 자극적이고 과장된 설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드라마 속 내용을 단지 허구에 불과하다고 무시해 버릴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가족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회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드라마가 우리에게 생각하고 고민할 거리를 던져주는 건 아닐까요?





〈드림하이2〉 vs 〈빛과 그림자〉

TV 드라마를 시청하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달라진 변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누구 손에 리모컨이 들려있는지가 그 가정 내 위계를 말해주는 듯도 하거든요. 오랫동안 아버지 손에서 떠날 줄 몰랐던 리모컨이 점점 자녀들 차지로 되고 있다 합니다. 그만큼 하나 둘 뿐인 자녀들이 집안에서 갖는 힘이 커진 탓이겠지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TV를 볼라치면 채널 선택권을 놓고 갈등이 생기기나 소위 '리모컨 전쟁'이라 불릴 만큼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요즘엔 DMB나 스마트폰 등 TV를 대체할 만한 것들이 많아 진보다는 탈하겠지만, 여전히 눈치싸움은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벨레비전이 소비되는 주공간이 집이라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시간 대 하는 두 드라마를 두고 부모-자녀 간 줄다리기에 본 적 없나요? 요즘 인기 아이돌들이 데거 출연하는 〈드림하이2〉와,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추억을 곱씹을 수 있는 〈빛과 그림자〉가 한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자녀들의 '본방사수' 의지와 추억을 놓치지 않으려는 부모 사이에서 때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하겠죠.



최근에는 여성 뿐 아니라, 50대를 넘긴 남성중에도 TV 드라마에 빠지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 아시나요? 어쩌면 어떤게든 가족과의 끈을 잃지 않으려는 이 시대 아버지들의 몸짓은 아닐까 생각해보십시오.

다양한 각자만의 미디어를 갖게 되어 이런 길들이 차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마음 편히 보는 건 좋지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닌 듯합니다. 드라마를 함께 보면서 티격태격, 왈가왈부하는 맛이 꽤 쓸쓸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 대화가 점점 줄어들어 요즘, 드라마는 공통 화제를 제공해주며 소통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여성 뿐 아니라, 50대를 넘긴 남성중에도 TV 드라마에 빠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쩌면 어떻게든 가족과의 끈을 잃지 않으려는 이 시대 아버지들의 몸짓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TV 속에서, 또한 그걸 보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저런 가족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소단위의 공동체인데, 점점 더 파괴되어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이러한 때에 가정의 영적 의미를 되살리고, 시대 변화에 따라 성경적인 가정의 형상을 새로이 정립해 가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겠지요. 그 과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이 소망에 따라, 앞으로도 TV 드라마를 둘러싼 가족 이야기 이거니만큼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6



박진규 서울여자대학교 인문양성학부 교수, 인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분야는 '미디어와 종교'로서, 종교와 미디어라는 두 개의 개별 영역이 서로 교차하는 다양한 지점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